

1990年度

郷土史料集

(横城 과三一 運動)

第 9 號

— 목 차 —

○ 제 1 절 일제 초기의 형성

1. 일제의 헌병통치 / 1
2. 종교실태 / 4
3. 학교교육 / 8
4. 농촌의 생활 / 9
5. 교통과통신 / 12

○ 제 2 절 3·1 운동의 발달

1.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배포 / 15
2. 3월 27일의 운동 / 20
3. 4월 1일의 운동 / 26
4. 4월 2일의 운동 / 35
5. 민중의 각성 / 36
6. 4월 12일의 분일리의 운동 / 37
7. 문헌과 증언자 / 41

横城文化院

머 리 말

본 향토사료집은 우리 고장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과거 우리 고장에서 살면서 우리고장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선인(先引)들의 애국심을 일깨워줌으로서 향토를 아끼며 가꾸어서 살기 좋은 애국의 고장을 이룩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조사·편집하여 발간하게 된 것이며 청소년 여러분이 널리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성과 3 . 1 운동

제 1 절 일제초기의황성

- 3 . 1 운동의원인

3.1운동은 우리 겨레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제의 통치 양상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파악한 후에 일제에 항거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민족적 역량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3.1 운동과 직접 연결된황성지방의 종교와 교육상태를 살펴 보는데 그치겠다.

또 3.1운동은 당초 서울에서 일어난 것이 황성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방에 전파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교통과 통신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것들을 알게 되면 3.1 운동의 원인을 자연 파악하게 될 것이다.

1. 일제의 헌병통치

일제는 구한말부터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우리를 여러방면에서 괴롭히며 행패를 부리더니 1910년 우

리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이후부터는 고을마다 현병을 배치하여 무단정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행정기관으로서 총독부가 설치되어 지방에서는 도장관(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군수와 면장으로 연결되는 행정체계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사법기관이 총독의 지배하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구실 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법기관인 법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하여 뒀다는 의미를 부인하지 못하는 제국주의의 체제일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체제가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 무단정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총독부와 별도로 경찰기관으로 조선 헌병사령부가 있었고, 지방에는 조선 헌병 사령관의 산하기관으로서 도에는 헌병대장이 있었으며, 군에는 헌병 분견소장 그리고 면에는 헌병 파견소장이 있어서 이들이 경찰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때는 경찰서가 따로 없었다. 경찰업무는 조선총독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 헌병사령관이 전담하여 있었는데 조선 헌병사령관을 경무총감에 임명하여 헌병과 경찰의 두 가지 일을 맡게 했으며 각 도에 있던 헌병대장은 경무부장에 겸임 임명하여 지방의 경찰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군과 면에서는 헌병 분견소장 혹은 파견소장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지 경무총감이나 경무부장처럼 별도로 경찰 업무를 표시하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경찰 업무는 현병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그것도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총독과 독립한 헌병사령관이 맡았으며 경찰조직의 체제 자체를 총독부에서 독립시켜 놓았던 점은 일제의 무단정치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행정부인 총독부 안에 두고, 행정기관인 경찰은 현병이 맡게 했던 그 의도는 우리 겨레에대한 일제의 계획적인 탄압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3.1 운동때 황성에도 행정기관으로서 군청이있고 현병 분견소가 있었는데 당시 군수는 심 상준이고헌병 분견소장은 도변경삼 랑이었다. 우선 군수는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실권이 헌병에게 있었다는 것을 쉽게알수 있을 것이다.

황성군의 당시 재판 관할은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맡고 있었는데 3.1 운동 관계 재판 서류를 검토하니 당시 원주지청에서는 대개 예심정도에 그쳤던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 붙여 들 말은 이때는 조선 태형령이라는것이 있어서 3 개월 분의 징역은 90대의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었고, 이 태형은 경찰서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헌병 분견소장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분견소장도 명목상 가벼운 범죄는 재판하였고, 즉, 범죄 즉결례라는규정에 의하여 헌병소장 (경찰소장) 이 법원의 재판에 넘

기지 않고 3개월까지 구류를 살게 할 수도 있고 90대의 태형을 때릴 수도 있었는데 3.1운동 때 특히 태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우리 나라 고을마다 헤아리니못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종교실태

종교를 검토하는 것은 황성 지방의 민족적 역량을 사상적인 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3.1운동전에 종교라면 모두가 우리 겨레의 편이었고, 우리의 민족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된 것이 없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을 계획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었으니까그 임무는 자연 종교기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황성의 종교는 천도교, 유교, 천주교, 감리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으나 편의상 종교안에 포함시켜 설명하겠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천주교의 문제인데 천주교는 3.1 운동때 프랑스 선교단의 지시를 받고 있어서 천주교가 교회 조직을 통해서는 3.1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황성에서는 서원면 풍수원 성당이 있는데 이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성당으로 우리나라 천주교회 역사상 유명한 성당이다. 원래 황성은 강원도 어

디보다 일찍 천주교가 전래하여 많은 순교자를 내었던고장으로 때문에 오늘날에 횡성 출신 신부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3.1 운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여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횡성 3.1 운동에서 그 몫을 담당했던 종교는 천도교와감리교와 유교로서 다른 지방에 비교하면 불교의 활동이 없었다.

천도교의 활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횡성에서는 거의 천도교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당시 횡성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대교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주 방면과 평창 방면도 횡성교구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내에는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횡성면과 우천면, 갑천면, 안흥면 그리고 원주의 소초면과 평창의 대화면 (방림면 포함) 에 보다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때에 대교구장은 횡성면 영영포리에 있던 최종하였는데 횡성에는 신재근, 장도훈, 김인경등 유능한 인사가 교회 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지만, 이채일, 이동구등 중앙 천도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어서 어디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다는 것이 다른곳과 비교된다.

이렇게 천도교회가 대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있었던 것

은 3.1 운동을 일으키는 훌륭한 배경이 되었으며 서울에서 천도교회가 주동하여 3.1 운동을 일으켰으니 그 영향으로 황성 3.1 운동도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성 천도교회가 황성읍에서나 농촌에서 대중적 기반을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천도교인의 모임이 아닌 청년회 (회장 조철구)가 천도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황성 천도교회는 현재 읍하리천주교회 근방에 있었다.

다음에 감리교회는 당시 설치된지 얼마 안되어 수십명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불과하였다. 그러기에 감리교회가 황성 3.1 운동에 참여는 했어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큰 몫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감리교회의 지도자인 내지리의 정해경과 읍하리의 탁영재가 참여한 것을 보아 얼마안되는 교인이었지만 모두 동원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에 유교에 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유학자가 없다는 이유로 3.1 운동과 유교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3.1 운동을 왜 3월 1일로 정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그것은 3월 3일 당

시 고종황제 인산 (장례식) 에 참여하러 지방에서 모여든유학자가 집회에 힘을 연자는 것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니 말이다. 또 황성군 서원면 매호리 (당시 분일리) 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천도교인도, 감리교인도 아닌 유학자들에 의하여 전개되었음을 보면 알것이다, 또 그해 3 월16 일 황성 보통학교 학생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여치 못하였다고 해서 가슴에 삼베천을 달 다녔다는 당시 헌병 사령부의 기록도 유교적인 풍토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고종황제가 일본 여자의 독약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니 옛 임금에 대한 충성심인 유교 윤리적 충동은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파시키는 사상적 배경으로중요한 몫이 됐던 것이다, 3.1 운동 당시 곳곳에서 서당훈도가 앞장을 섰던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일인 것이다. 여기에서 황성 3.1 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인경, 김윤배, 박영하등이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의 교사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라가 망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마을마다 글방을 차려놓고 선생을 모셔다가 자녀의 공부를 시켰으니 황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였고, 이 글방에서 배운 유교 철학은3.1 운동때 특히 시골에서 큰 빛을 발휘했던 것이다.

3. 학교 교육

3.1 운동때 황성에 있었던 학교는 황성 보통학교가 대표적이었다. 황성보통학교는 원래 황성 객사에 있던 화성학교가 변천한 것인데

3.1 운동 당시는 4년제의 학교였다. 보통학교라면 오늘날 국민학교를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학교의 교육수준보다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높은 것이었다. 그것은 보통학교 학생이면 대개 가정에서 한문 공부는 마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음악미술등 예능과목은 아니더라도 일반 학술과목은 자연이 높은 수준에서 교육될 수 밖에 없었고, 또 그 때의 학생도 20세에 가까운 사람이 많았던 관계로 오늘날의 국민학교 교육수준은 물론, 아동보다 사회적으로도 높았던 것이다.

황성에는 이와 같은 보통학교 졸업생이 천도교회에 황성 청년회를 조직하여 있었으면 그 청년회 회장은 조철구였다.

황성보통학교는 사립학교였던 화성학교를 인수하여 공립학교로 발전한 것인데, 당시에 황성군 내에는 사립학교로서 성심서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광동국민학교의 전신이다. 원래 풍수원 성당의 부속학교로 세워진 것이나이 성심서원이 우리 나라 종교계 및 신문화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는 크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황성 보통학교나 성심학교는 신

문화의 조류와 함께 생겨난 근대적 교육기관인데 여기에서 근대적 민족주의의 사상이 발달하고 있었음은 물론, 그것이 3.1 운동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상적 배경이 됐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 외에 마을 마다 거의 설치되어있던 글방이나 서당도 3.1 운동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던 중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 3.1 운동의 사상적 원인은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호응하였다

는 점도 있으나 지방에서는 봉건적 충성심이 고종황제의 죽음에 자극되어 일어났다는 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시골에 있었던 서당교육은 3.1 운동의 원동력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당시 시골에서 근대적사 상인 민족자결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판단일 것이며, 그러한 시골에서도 3.1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이니 그 시골의 사상적 배경은 역시 전통적 서당식 교육에서 많이 찾아야 할 것이다.

4. 농촌의 생활

시골에서 일어나 3.1 운동의 중요한 원인은 일제의 현병정치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농민의 착취 종교와 학교를 통한 민족 사상의 발달 고종황제의 별세에대한 민족 감정의 폭발 서울의 3.1 운동에 자극된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것은 3.1운동 당시의

상황을 놓고 검토하여 끌어낸 원인들인데 보다 큰 것은우리 겨레가 오랜역사를 지나오면서 간직하게 된 민족정신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 민족정신은 구한말에는 의병항쟁으로 나타났고 일제시대에는 3.1 운동으로 연결되어 나타났고, 계속하여 여러 모양의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겨레를 일본 제국주의가 무참히 탄압, 착취하고 있었으니 우리들이 참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일본의 착취양상은 농촌에서도 가혹하였다. 당시 농촌의 실태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그 전해인 1918년에 토지 조사사업을 끝내고, 일본은 한국 농촌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도 소위 세부측량을 할 때,일본의 관리나 친일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선량한 농민을 괴롭혔지만, 토지 조사사업을 끝내고 그들은 통계적 숫자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침략하였다. 예를들면 동양척식회사를 통해서 농토를 독점한다든지, 혹은 농지세로서 농작물을 착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일제는 농토뿐만 아니라 임야도 빼앗고 있었는데 1911년 9월에 삼림법을 제정해 놓고 소위 국유림 구분조사 및 임야조사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산을 수없이 빼앗았다. 특히 사유림은 계출 신고케 하였는데 신고서류에 측량도면을 첨부하게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붙여, 실제로 산을 가진 사람도 일본의 관리나 친일파혹은 특별히 유식한 사람이 아니면 신고 자체를 불가능 하도록 했다. 그것은 산에 대한 측량도면을 만들자면 오늘날도 그렇게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농촌사람들의 수준으로서 더욱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판단이 갈줄안다. 그리고 사유림을 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계측량을 할 때 좋은 산은 국유림에 편입시키는 등의 착취 행위를 예사로 했으니 농민의 항일의식은 점점 높아만 갔다.

그렇게 대부분의 임야는 국유림으로 만들어 놓거나, 친일파의 소유로 확정시켜 놓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묘지제, 화전 경작의 제한, 임산물 채취의 제한등의 조치를 엄격히 실천하니 농민의 생활이 한없이 구속을 받았다. 위의 것들은 표면상으로 보면 좋은 조치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국유림이나 친일파의 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니 당시 농민의 일상생활에서 써야 할 나무는 어디에서 구하여야 한단 말인가 결국 친일파나 일제의 관공서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얼마간의 나무를 구할 수 있었고 아니면 일본관리의 눈을 피하여 나무를 훔치다시피 해야만 됐다. 이렇게 억울한 농민이 3 . 1운동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면 쌓인 울분을 한번 터뜨리지도 못했을 것이 아니가,

농민을 착취하는 것은 주세와 연초세등에도 나타났지만

3. 1 운동 당시에는 특히, 도로 (신작로라 불렀다.) 공사에서도 나타났다. 값싼 품삯으로 일을 시키거나 부역으로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3. 1 운동 무렵, 황성에서는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문재와 전재를 넘는 길을 우천면 우항리에서 원주 소초면 평장리를 통하여 경기도로 가는 길을 닦아 1918년부터 개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주에서 황성으로 오는 길은 춘천으로 통하는데 원주 황성간의 도로는 거의 지방 농민의 부역에 의해서 닦은 길이다.

이러한 것 외에도 농민이 받은 고통은 많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만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생활을 영위하던 우리 농민들은 곳곳에서 측량기수나 일제의 관리들과 싸움을 벌였고, 그러한 동안에 3. 1 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던 것이다.

5. 교통과 통신

3. 1 운동의 분위기는 황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성숙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고종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에 의하여 촉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디서나 곧 터질 것 같았다. 이 때에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터져나오니 전국으로 번져 온 겨레가 일어나 항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황성의 교통과 통신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통신은 당시에 황성읍에 우편소가 있었고 전화는 행정전

화로서 헌병 분견소에만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통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천면을 통과하여 가는길이 막 계통되었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길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으나 아직 자동차는 다니지 않았다. 황성사람들의 서울과의 교통을 걸어서 양평을 거쳐가지 않으면, 원주 문막지나 문막에서 약20리쯤 가면 부론면의 관할인데 고려때부터 유명한 서울로 가는 뱃터가 있었으니 배를타고 가기도 했다. 원래 그 뱃길은 고려와 근세조선때 정부가 설치한 교통으로서 주로 조세를 거두어 날르는데 많이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뱃터에는 정부의 창고 (조창)를 지어 두는데 부론면의 것을 흥원창이라 한다.

제 2 절 3 .1 운동의발달

황성에서는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여 3 월 27일에 첫 번째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뒤 따라서 4월 1 일 2일 3차에 걸쳐서 황성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4월1일부터 7 일까지의 시장철폐운동이 있었고 4월12일에는 서원면 분일리 (매호리) 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져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정면으로 항쟁 하였다.

그러느라고 5명이 피살되고 수십명이 부상되었으며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일제 헌병에게 잡히어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았다. 혹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죄없

는 죄수로 고통을 겪었다, 그중에서는 강만형 처럼 옥중에서 죽음
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횡성운동은 곧 이웃 고을로 번져 나갔으니 그것들
중에서 횡성운동과 직접 연결된 것이 두곳의 운동이었는데 그
것중 소초면의 운동은 4월5일 있었는데 4월1일 횡성장터의 운동
이 연장된 것이고, 평창의 운동은 4 월 4 일과 5일에 전개하려던
것인데 4월 3일 비밀이 탄로되어 관계자가 모두 잡혀 성공치는
못했으나 이것은 3월 12일 부터 횡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배부할 때
평창까지 배부한 결과이니 역시 횡성운동의 연장운동이었다.

횡성의 3 .1 운동은 당시 천도교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서울의
3 .1 운동의 소식은 곧 전국 방방 곡곡에 전해 졌는데 횡성의
경우는 횡성 천도교회출신으로 도훈이던 이 채일과 의 사원 이
동구는 서울에서 3 .운동과 천도 교회의 활약에 대한 소식이 비교
적 자세히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전국 각지방에
독립선언서를 우편으로 보냈었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서는 미리 발
각되기도 했으나 어떤 곳에서는 발각되지 않고 전달되기도 했다.
대개 지방의 천도교인이나 기독교인 혹은 그곳 청년회 대표에게
보냈는데 횡성에도 그런 인사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안다. 그것은
횡성면 반곡리에 거주하는 박순기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당신에 횡성면

회계 서기로 있으면서 황성청년회의 총무로 있었는데 자기에게도 독립선언서 한통이 보내 왔더라는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 (1970 . 10. 10 증언 77세)

1.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배포

당시 황성 천도교회는 대교구였는데 대교구장은 최 중하였다. 그리고 천도교회의 지도층 인사는 봉훈이던 신재근과 장 도훈, 김 인경, 강 달회, 강만형 등이었다. 그중에 강 달회와 강만형은 원주 소초면 둔둔리의 사람이거나 당시 황성 천주교회가 원주 (원성) 를 통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회가 추진한 황성의 3 . 1 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이며, 또 둔둔리는 원주 땅이라 행도 특히 과거에는 황성 생활권에 속해 있어서 장날도 황성 장날을 이용했기 때문에 황성 3 . 1운동에 가담했던 것이다.

독립선언서를 가절오고 3 . 1운동을 추진하던 곳은 황성면 읍 하리에 있던 천도교회 교구실과 영영포리 441번지 신 재근의 집이었다.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기 위하여 최 중하, 신 재근, 장 도훈이 협의하여 3 월 초에 장 도훈이 당시의 돈으로 3원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그리하여 장 도훈은 서울에서 의사원으로 활약 하던 이 동구를 만나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가지고 3 월 11일 황성에 돌아왔다.

장 도훈이 돌아오니 운동 계획은 급지전하여 영영포리

신 재근의 집에서 최 중하, 신 재근, 장 도훈, 김 인경이 협의하여 독립선언서를 배부한 것은 3월 12일과 13일의 일이었다. 3월 12일은 으력 2월 11일로서 황성장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연락하기가 좋았다.

당초 독립선언서를 가져온 것은 장 도훈이 재판석에서 말한대로라면 40매였고, 태극기는 20매였다.

그리하여 3월 12일과 13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여러곳으로 배부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만세 운동을 추진하였다. 독립선언서와 태극기의 배부, 그리고 만세운동의 추진은 약10일간 계속되어 3월 27일 (음력 2월 26일) 첫 번째의 운동이 전개 되었던 것이다.

원래 운동의 추진은 읍하리 천도교회 교구실과 영영포리 신 재근의 집에서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하여 순조롭게 추진되었는데, 3월 16일 황성보통학교의 학생일부가 상장을 달고 일제에 대하여 무언의 시위를 벌인 일이 생겨 좀 늦어진 듯 하다. 당시 조선 헌병사령관이 일본정부에 보낸 보고문에 보면 3월 16일 황성보통학교 학생이 고종의 죽음에 조의를 표시하는 뜻으로 삼베천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고 나타나 있으며 이것 때문에 조선군사령관은 3월 13일 이후 춘천에 주둔해 있던 보병 79연대의 병력 일부를 원주로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황성군 내에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고, 따라서 만세운동의 추진도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

면 안되었던 것이다.

3월 12일부터 약 10일간 각 지방에 연락하고 계획을 추진할 때 영영포리 당시 구장이던 위창래가 신재근의 집에서 만세운동을 추진하는 그 비밀을 보장해 줬다는 점은 고마운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할 때 각지방에서 참가하고 있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황성면	읍하리	최 종 하 (43세)	천도교구장
“	“	윤 태 환 (22세)	청년회원
“	“	탁 영 재 (?)	감리교인
“	읍상리	전 성 수 (34세)	천도교인
“	“	최 동 수 (?)	청년회원
“	영영포리	신 재 근 (64세)	천도교인
“	내지리	정 해 경 (43세)	감리교인
우천면	두곡리	김 명 기 (?)	유 학 자
“	“	김 진 대 (?)	“
갑천면	매일리	김 윤 배 (56세)	천도교인
안흥면	안흥리	천 선 재 (78세)	“
“	상안흥리	장 도 훈 (49세)	“
“	“	김 인 경 (38세)	“
“	“	안 경 춘 (20세)	“
“	가좌곡리	김 연 의 (21세)	“
“	하산전리	조 상 렬 (49세)	“
우천면	법주리	강 승 문 (?)	“

소초면 둔둔리 강 달 회 (51세) 천도교인

“ “ 강 만 형 (28세) “

“ “ 하 영 현 (?) “

“ 교항리 추 병 학 (47세) “

“ “ 추 병 룬 (45세) “

위세서 강 달회 (사문)와 하 영현 (돌림) 그리고 강 승문 (사윤)은 4월 1일 만세운동때 피살되었고, 최 종하 신 재근. 장 도훈은 2년의 징역을 살았고, 정 해경은 1년6개월, 천 선재는 1년. 김 인경, 조상렬, 전 성수 김 윤배. 김 연의, 안 경춘. 강 만형은 8개월, 윤 태환 추병륜은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그리고 탁 영재, 최 동수, 김 명기 (김 사극), 추 병학은 만세운동 후에 숨어 버렸다. 앞에 말한 사람들의 조직은 최 종하, 신 재근. 장 도훈을 중심으로 세 갈래의 계통이 뚜렷하다. 그 하나는 천도교 계통이며 이 천도교 계통은 김 인경, 김윤배 등 천도교인 이면서 한문 학자로서 서당 훈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통 사극씨로 알려진 김 명기 같은 유학자를 포섭하였다. 김 명기는 추동리에서도 살았던 사람 인데 우천면에서는 명망이 높은 인사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 해경, 탁 영재 등의 가림교 계통이었고, 또하나는 윤 태환 등 청년회의 계통이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다섯갈래로 분류된다. 황성 면이 하나이고, 우천면과 안흥면 서부(하산전리, 가좌곡리 등),

그리고 안흥면 동부 (전재동부), 또 갑천면이 그 하나이며 마지막으로 원주 소초면이 하나였다. 소초면은 거의 둔둔리 한마을이 해당되나 둔둔리의 중심인물 강만형의 매부이며 강 달회의 종손서가 되는 교하리의 추 병학과 그의 동생 추 별륜이 포섭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 인경은 원래 평창 대화면 운교리-당시는 방림면이 없고 모두 대화면에 합쳐서 있었다. - 사람인데 안흥에서 서당(글방)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검토하니 독립선언서 12매를 평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선언서는 평창운교리에 살던 이 인영에게 전달하여 이것을 계기로 평창에서도 만세운동을 유발시켰고, 또 4월5일 소초면에서 따로 운동을 일으키게끔 하였으니 평창과 소초면의 운동은 횡성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횡성운동은 앞에서 말한 운동 외에 서원면 분 일리 (지금 매호리)에서 단독으로 일킨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원주의 지정면, 건등면 (지금 문막면)방면 운동의 영향을 받아 유학자 혹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분일리 운동의 중심인물은 다음과 같다.

257번지 (향산) 송 병 기 (28세)정역10월

247 “ (“) 성 태 현 (29세)8월

“ (“) 박 민 희 (41세) “

359번지 (상촌) 유 정 근 (40세)정역7월

492 “ (수동) 이 정 현 (26세) 6월

158 “ (상촌) 이 두 연 (39세) 6월

499 “ (수동) 이 종 우 (40세) 6월

119 “ (“) 김 옥 봉 (40세) 6월

이상이 매일리에서 만세운도를 추진하는데 중심인물이었다. 그중에서 김 옥 봉은 그곳에서 술집을 하던 사람으로서 협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죄목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2. 3월27일의 운동

앞에서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소개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최 남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탄압하고착취하던 것에 비하면너무 온건적인 것이었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것이다.독립선언서가 그와 같이 온화한 문구로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을 어떤 사람은 비 폭력에 의한 평화적 민족운동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규정 일 것이다. 33인은 평화적 운동을 계획 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지방에서는 폭력 운동을 계획하였고, 힘으로 맞서 싸운 것이 틀림없다. 독립선언서가 너무 온화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지방에서 더욱 과격하게 전개될 운동도 어느 한계에서 머물렀던 것이다. 만일 독립선언서가 과격한 것이었다더라면 3.1운동은 보다 더 활발

한 민족 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횡성에서도 처음에는 독립선언서에서 밝히고 있던 것과 같이 평화적 시위 운동에서 출발하였는데, 처음의 만세운동은 3월27일에 있었다. 이 날은 음력 2월26일로서 횡성 장날이었다. 그런데 우선 당시 일제측에서 기록으로 남겨 둔 보고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헌병 사령관(경무총감)의 비밀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27일 횡성 시장에서 12명이 옛날 한국기를 흔들며 운동을 개시하기에 관계자 8명을 검거하였는데 시장의 각 상점은 문을 닫고있다. 원주에서 헌병3, 보병4명이 응원차 왔다. - (김 정명, -조선독립운동-) 그리고 3월27일 당시 강원도 장관이 조선총독에게 보낸 전신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오후 한시 횡성읍내 시장에 약3백명이 집합하여 천도교도 8명과 그외 4명이 옛 한국기를 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기에 천도교도 8명을 포박하다.-

위의 보고문을 보면 이 날 만세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은 12명이었던 모양이며 오랜시간 동안 운동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 날 선두자들의 판결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

3월27일 관계자의 판결문은 다섯사람의 것 밖에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신 재근(2년), 장 도훈 (2년), 안경춘 (8개월), 강 민형(8개월), 윤 태환(6개월)의

판결문인데 원주 지청에서 예심을 거쳐 그 해 5월1일에 경성 지방법원에서 위에 명시한대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서류 심사로서 기각되었던 것이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3월10일경 영영포리 신 재근의 집에서 신 재근과 장 도훈이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펴기로 결정한 후 ,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서울에서 구입해 오기로 했다. 그리하여 장 도훈은 3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선언서40매와 태극기20매를 가져와서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서 강 만형과 안 경춘이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다음에 윤 태환이 동의하여 같이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3월 27일 황성 장날 윤 태환이 큰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나섰으며 그 외 모두가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위의 몇가지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한두 가지의 해석을 하며 또 문제를 제기해 둔다.

(1) 3월27일의 운동은 독립선언서에 밝혀있는 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만세를 부르는 정도의 범위를 못 벗어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헌병사령관의 보고문에 장터의 상점은 모두 폐쇄하고 있다

는 구절이 있고 또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상점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 이점을 고려한다면 온화하게 만세를 부르는 정도에 그칠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고 민중의 준비 태세도 상점 문을 닫고 덤벼들고 그 인원이 3백명에 이르렀다면 지도자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어떠한 시위 행동으로 변할지 알 수 없었던 급박한 분위기였음이 사실이었다.

(2) 그러나 상점 문을 닫으며 준비에 들어갈 때가 거의 점심대였고, 이것을 눈치챈 황성헌병분견소에서는 원주에 급히 연락하여 헌병3, 보병 4명을 불러들여 그들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중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3) 이러한때 오후 한시경 윤 태환이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높이 세워들고, 따라서 지도급 인사가 같이 군중 앞에 나타났고, 신 재근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다. 이것은 우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서울에서 있었던 모양을 모방한 절차이기도 했다.

(4) 그러한 때에 일제 헌병이 몰려왔다. 그러나 모두들 조선독립만세만을 부르게 됐고 선언서는 읽을 여가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앞에 나섰던 지도급은 잡혀가게 됐다. 그리고 아직 만세운동에 경험이 없던 군중도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우선 해산하여 다음 계획을 기다

릴 수 밖에 없었다.

(5) 이날 독립선언서도 읽지 못하고 만세운동도 치열하게 전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에 헌병 분견소는 지금 군청 뒤 어린이 놀이터인 옛날 황성 현감, 그리고 1895년부터는 황성군수가 사무를 보던 동헌에 있었고 만세군중은 장터 (지금 비슷한)에 있어서 거리가 좀 멀다는 것만 생각하고 독립선언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줄 판단하여 선언서를 읽어서 군중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을 충분히 알리고 격려하려던 것이 뜻밖에 일제 헌병이 빨리 몰려 왔기 때문이었다.

(6) 그러나 이 날의 운동은 장시간 계속하지 못하였어도 이것이 황성군 각 마을에 전해져서 만세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됐고, 또 이것을 주동하던 천도교인도 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 감리교인과의 연합하여 4월1일 큰 규모로 치열한 운동을 가져오게 했다.

(7) 여기에서 3월27일 주동급의 사람중에서 2년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을 소개해 둔다. 신 재근은 당시 64세의 노인으로서 황성면 영영포리 441번지에 살았는데 황성 천도교회의 봉훈으로서 천도교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3.1운동때도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 장 도훈은 당시 49세로서 안흥면 상안흥리 240번지(물안골)에 살았는데 장 도훈은 원래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안리의 사람으로 1907년에 안흥에 이사왔다. 평안도에서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한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당시 평안도 지방에서 의병대장으로 이름 높은 유인석의 고향인 강원도에 찾아와 안흥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는 2년간의 징역으로 고생한 후 안흥에 돌아와 있다가 1937년 2월8일에 작고 하였다. 후손으로서 안흥면 월현리 -등자치-에 아들 장 기을, 장 기병이 살고 있다.

안 경춘은 안 승훈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20세로서 역시 상안흥리 641번지 (배나무골)에 살았다. 그는 장 도훈과 김 인경에게 글을 배운 청년으로서 3.1운동에 참가했는데 8개월의 징역을 마친 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는 심하고 공연한 간첩으로 사람을 괴롭히니 안 경춘은 그들의 눈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주 같은 것을 보며 세월을 보냈다. 다른 경우에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더러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여 “점장이” “술장사” 로 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았는데 흑간 철 없는 사람들이 욕하는 수가 있으니 그것은 친일파가 아니면 무식한 탓이다. 안 경춘의 후손은 그 아들 안 성만이 상안흥리 -버리소골-에 살고 있다.

강 만형은 당시 28세로 원주 소초면 둔둔리 223번지에 살았었다. 그는 구한말 의병으로 황성 청일면-춘당고개-에서 왜병과 싸우다가 전사한 강 도영의 아들이며 4월1일 만세운동때 피살 당한 강 달희의 증손자이다.

그들은 모두 집안이 천도교 가문으로서 특히 강 만형은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은 누구보다 격했다. 그러한 관계로 황성 헌병 분견소에서도 심한 고문을 받아 병주에 8개월의 징역을 살다가 1920년 2월28일 서대문 옥중에서 작고하였으니 29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의 후손으로 아들인 강 백선이 원주시 학성동 2반에 거주하고 있다.

윤태환은 당시 22세로서 황성면 읍하리 68번지에 살고 있었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최 종하, 탁 영재와 더불어 여러 차례 협의 후 3월27일 제일 먼저 만세운동에 몸을 던졌다. 혹간 윤 태환이 활동한 것이 4월1일의 운동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으나 판결문을 봐도 3월27일이며 더구나 그의 부인 김 성배 할머니가 황성면 갈풍리에 살고 있어서 그 할머니가 분명히 음력 2월26일 (3월27일)로 기억하고 있으니 4월1일 운동때로 아는 것은 착각인 것 같다. 4월1일은 그의 형 윤 석환의 활약이 배후에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김 성배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윤 태환은 3월28일 아침에 잡혔고, 재판기록에 따르면 6개월의 징역형을 겪어야 했다.

3. 4월1일의 운동

4월1일의 운동은 3월27일의 운동이 발전하여 전개된 운동이다. 3월27일의 운동에서 횡성 천도교회의 지도급이 체포되어 헌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남은 교인들은 더욱 분개치 않을 수 없었으며 다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배후에서 조종하던 횡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 종하가 있어서 보다 조직적인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감리교회의 지도자 정 해경과 탁 영재와 연락하여 더욱 규모를 넓혔으며 천도교회에서도 우천면 법주리의 강 승문, 안흥리의 김 인경, 가좌곡리의 김 연의. 하산전리의 조 상렬, 갑천면 매일리의 김 윤배, 횡성면 읍상리의 전 성수, 운주 소초면 둔둔리의 강 달희, 하 영현 그리고 교향리의 추 병륜 형제등이 죽음을 각오하고 4월 1일의 장날 만세 군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밤낮 산을 넘으며 활동하였다. 특히 3월27일 장사하러 횡성장에 왔던 당시 영월군 야변면 주천리 김 성서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김 윤신은 모두 천도교인이기에 장사도 버리고 4월1일의 만세운동을 위하여 장사를 가장하고 마을을 다미너 활약했으니 그들의 공적도 컸던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이번장날 구경거리가 많다.”고 민중에게 호기심을 불러 넣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만세운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놓을 것이라”고 협박도 하며 4월 1

일 장날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를 천도교인이나 감리교인 모두가 힘을 쏟았다.

이리하여 4월1일 (음력3월1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대목장 같이 군중은 모여 들었다. 당시 강원도 장관의 보고에 만세군중만 1천3백명으로 추산하니 만세군중 외에 장사꾼도 있었을 것이고 구경꾼도 있었을 터이니 수천명의 장꾼이 모였을 것이다. 우선 당시의 보고에 나타난 인원은 국제적 체면 관계로 인원을 줄여 보고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니 강원도 장관이 보고한 1천3백명 보다 훨씬 많은 만세군중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천도교회가 감리교회와 연합하였고, 3월27일의 운동을 교훈으로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보람은 수천 군중을 동원했다는 사실에서 일단계 성공 하였다.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모여드는 나라 잃은 백성, 일본의 말굽에 밟힌지 10년 그동안 갖은 고생을 겪으며 참아 왔던 백의민족의 행진이 횡성 장터로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일본 군대에 끌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징용이나 징발에 끌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요, 횡성에 주둔하여 행패를 부리는 일제 헌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였다.

군중이 온 장터에 가득 찰 때까지 모두들 기다렸다. 그리고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과 장터의 요소요소에는 주로 천도교인이 파견되어 이 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혹간 얼빠진 수작으로 만세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민족의 이름으로 질책도 하였다. 여러 곳 술집에서는 돈이 아까우랴, 술을 받아 너도 주고 나도 마신다. 당시 수로공부로 있던 전 한국은 장터 한농옥 술집에서, 오는사람 가는사람에게 술을 받아 준다. 횡성면 옥동리 한치고개에서 술을 팔던 여자 황소아짐마(황소갈보)도 술판에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한다. 지금 송강루 옆에 있던 황용구의 술집에서도 만세운동을 역설하는 소리는 높다.

이리하여 만세분위기는 익어갔고 따라서 원주에서는 일제군대가 증강되었다. 점심때가 지나도 군중은 갈 생각을 안하고 저녁때를 기다린다. 날이 약간 저물기를 기다렸던 것은 군중의 심리나 일제헌병들의 심리나 같았다. 군중은 총을 피하기 좋다는 생각에서 저녁때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헌병은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좋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4월1일은 조선군 사령관이 -강력히 무기를 사용해서 폭동을 조속히 진압하라- 는 특별명령을 발포한 날이었으니 헌병들의 태세도 그들대로 비상한 것이었다.

낮에 군중의 동향을 본 일제 헌병은 총을 쏘는 계획등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과 대처의 한토막을 보면 우선 일본민간인과 헌병들의 가족은 당시 헌병 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규화의 집에 숨겨 놓았다. 이것은 이 규화 노인이 직접 증언한 것인데 당시 그의 집은 지금 군청 뒤 언덕에 있었던 관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에 황성면 회계 서기로 있었던 박 순기 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면사무소의 중요 서류는 낮에 비상 반출하여 숨겼으며 낮에 면서기를 소집하여 심 상준 군수와 김 석환 면장이 앞어나서 심상준 군수가 “오늘 총소리가 나더라도 놀래지 말고 몸조심 하라” 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미 낮부터 무기도 없는 백성을 상대로 전쟁과 같은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무기는 없더라도 그들을 몰아 내려고 했던 것이며 그들에게 동정을 기다린 것이 아니니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한국인의 군수와 면장은 그 태도가 다른 곳의 군수와 면장에 비하여 너무 친일적이었다. 가령 당시 이천군수 이 문하 같은 사람은 군중이 만세를 부르려고 모여 들 때 그 앞에 나가 울면서 하소연 했는데, 그것은 만세운동을 제지라는 이유보다 이 문하 군수의 말대로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하니 억울한 백성의 죽음을 예상하여 군중 앞에 울었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 군수는 형식적으로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군중에게 위협을 알려줬던 것이다 . 그런것에 비하면 황성군수는 너무 냉담했던 것이 주목된다.

하영든 4월1일 때로 접어들어 네시로 넘어섰을 때다 군중은 집단을 만들고 장터에서 쌀가게하던 조 홍렬은 집을 고치려고 준비해 뒀던 석가래 나무를 잘라서 군중

에게 나누어 줬고, 윤 석환은 장작을 배급하였으며 몽둥이를 못 쥔 사람은 아무 집에서라도 적당한 곤봉을 쥐고 여기 저기 모였다.

10년동안을 참아온 군중의 분노를 머금은 눈동자는 뒷산 헌병 분견소를 응시했고, 군청을 살폈다. 골목마다 꿈틀거리는 무거운 행렬은 죽음을 눈앞에 놓고 한참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 누가 먼저 외쳤던가, 탁 영재라고도 말하고 조홍렬이라고도, 혹, 정 두철이라고도 말한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와도 좋다.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그리고 군중은 장터에 있던 게시판은 물론이요, 군청과 면소 앞에 있던 게시판도 부시면서 만세를 부르며 군청쪽으로 몰려갔다.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술집도 문을 닫았다.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 규화는 군중에게 매를 맞고 도망쳤으며 앞은 달리며 군중을 해산시키려던 소도로 상등병은 최 동수에게 잡혀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김 진대는 김 명기의 부친으로 당시 우천면 두곡리에 살았다.

이때 뒷산에 잠복해 있던 헌병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군중의 움직임은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분노와 울분에 찬 10년 동안의 한이었기에 총소리에 멈출 수 없었다. 군중은 다시 일어났다. 황 용구 술집에서 총소리에 놀라

들어 앉아 술이나 먹던 몇몇남자들은 옥동에서 온 황소아짐마가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뛰쳐 나왔다. 이날 황소 아짐마는 칼을 들고 다니며 운동을 재촉했다고 한다. 앞에 말한 천도교인과 감리교인은 물론 시장의 상인도 시골의 농민도 모두 나서서 만세를 부르는데 점점 날은 저물어 갔다.

이때 또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그리하여 선두에 섰던 당시 수로공부 전 한국이 쓰러졌다. 그리고 계속하여 여기저기서 피를 쏟으며 쓰러진다. 법주리의 강 승문(강 사문)을 비롯하여 둔둔리의 하 영현(하 돌림) 강 달회(강 사문)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이러한 기회에 헌병과 보조원은 장터로 내려와 군중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일제측 기록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헌병사령관의 보고문을 다음과 같다.

-4월1일 오후 일곱시경 횡성 읍내에서 약1천명의 폭민이 봉기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관공서와 상점을 파괴하기에 보병과 협력하여 발포 해산시켰다. -

강원도 장관의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횡성읍내에서 어제 오후 다섯시부터 여덟시까지 사이에 전후2회에 걸쳐 약1천3백명의 폭민이 집합하여 손에 곤봉을 들고, 돌을 던지며 시장의 상점문을 파괴하고 관공서를 습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처음에는 주모자를 체포

해산시켰는데 폭민에게 사상자가 있다. -

위의 보고문에서 상점을 파괴했다는 것은 만세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군중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부상점은 친일파라고 공격한 것을 말하며 관공서를 습격했다는 것은 면사무소에 돌을 던진 것, 그리고 군청에 돌을 던지며 군중이 공격하였던 것을 말한다.

아무튼 날은 이미 어두웠고 여기 저기에서 총에 맞아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탁 영재, 김 명기, 최 동수 같은 사람은 멀리 도망쳐 나타나지 않았고 부상자는 피를 흘리며 그래도 왜놈에게 잡히기 싫어 몰래 집으로 갔다. 한편 사망자5명은 면사무소 (지금의 자리 앞에 있었다) 마당에 운반되어 거지의 시체마냥 거적으로 덮여졌고 중상자는 당시 박 인춘과 동업하던 신 용구병원으로 옮겨졌다. 신 용구 병원은 지금 양조장 자리에 있었다.

이날 피살자 5명중 4명은 직사했고 1명은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그리고 신 용구 병원에 입원했던 인원은 그해 5월2일 경성 지방법원의 정곡면(안흥면)안흥리 천 선재의 판결문을 보니 8명이었다고 하니 부상자가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부상자 중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집으로 도망쳐 버렸고, 그 후에 헌병의 감시가 심해서 부상된 사실을 숨기기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현재 우천면

추동리에 살고 있는 윤 동선 노인(1970.10.10 현재 86세)은 당시 영영포리에 살면서 이날 만세운동에 참가 했다가 목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잡혀가서 매를 맞고 나왔다고 증언하는 것을 봐도 알 만한 일이다.

피살자도 이날밤에 모두 그마을 사람들이 시체를 모셔 갔는데 둔둔리의 사람들은 하 영현과 강 달희의 시체를 안고 밤길에 촛불을 밝히며 돌아가 사흘장을 지냈다. 원통한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하고 장사 지내야 하는 억울한 울분은 드디어 이틀뒤에 다시 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으니 그것이 4월5일 소초면 만세운동이다.

그리고 4월1일 만세운동으로 잡혀가서 태형을 받고나온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 3.1운동때에 태형으로 90대의 매를 맞아서 살이 일그러져 1년동안 병치료로 아무일도 못했던 것은 물론, 오늘날과 같이 소독약이 없어서 여름 철을 지나며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했다. 태형은 거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대에서 처리했는데 이날 잡혀서 징역을 산사람은 천선재(1년), 정 해경(1년6월), 김 성서(1년6월), 조 상렬(8월), 김 윤신(8월), 전 성수(8월), 김 윤배(8월), 김 연의(김순서)(8월)등이다. 그런데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경찰이 괴롭혀 모두 가난한 살림에서 고생하였고, 모두 다른 곳으로 몰래 떠나갔기 때문에 그 후손을 찾지 못하였다. 가좌곡리(지금 상하가리) -구령마을-에 살던

연의 같은 인물은 감옥에서 나와 가족과 더불어 만주로 들어가 독립운동에 남은 삶을 바쳤으나 아무도 그 후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

4. 4월2일의 운동

어제 장날 밤까지 만세운동을 벌였던 군중은 잡혀가기도 하고 횡성장터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날이새샷 2일에는 잡혀간 사람을 풀어 달라는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날 시위에 대하여 강원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오늘 아침 횡성읍 사람 약2백명이 헌병 분견소에 몰려와서 독립운동의 허가를 요구하며 또 지금까지의 체포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제 운동하던 사람도 섞여 있을 것임 -

이날은 만세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당시 헌병 분견소장 도변경삼랑과 군중대표 정 호봉, 조홍렬과의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던 이 규화 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약 한시간 옥신각신 하다가 분견소장의 강경한 태도로 군중은 돌아갔으나 이때의 군중은 대부분 횡성장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상점의 문을 열지 않기로 합의하고 모두 폐쇄하였다. 그리하여 7일에 사서 군수와 분견소장의 간청에 의하여 문을 열었으니 이것은 일본압제에 대한 무언의 항쟁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강원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횡성읍내에서는 4월1일 소요 사건이 발생한 이래

조선인 상점은 모두 폐점하였는데 군수와 헌병 분견소장의 간곡한 설유에 의하여 7일에 이르러 개점하다. -

그리고 4월7일 열두시경에는 장터에 있던 게시판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인다. 체포한 사람을 석방하라 -는 전단이 붙었다는 역시 강원도 장관의 보고문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 만세운동의 뒤가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의 상황을 봐서도 알 것이다.

5. 민중의 각성

3월27일과 4월1일 그리고 2일의 시위운동이 있은뒤, 횡성군내 각 마을은 물론 원주, 평창, 영월에 이르기까지 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집집마다 퍼져 나갔다. 그리고 마을마다 만세운동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었다. 이러던 중 만세운동을 극력히 변호하고 시국을 이야기하던 사람 가운데에는 일본 앞잡이에게 발각되어 잡혀가기도 했다. 그중에서 더욱 열렬했던 사람은 감옥살이도 했고, 당시 경성 지방법원 판결문속에서 횡성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재판 받은 사람의 것이 발견된다.

그 하나는 둔내면 지포곡리에서 잡혀와 5월9일 재판을 받고 8개월의 징역을 산 이 기순의 것이고, 하나는 공근면 하갈마곡리의 이 유태의 것이다. (판결문책 제5책 P.582와 588)

그리고 마을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었기에 횡성군수와 헌병 분견소장은 다음과 같은 비밀 공문을 김 면장과 동장에게 하달하였다.

비 제 15 호

대정8년4월15일

횡성군수

횡성 헌병분견소장

각 면장 각 구장 앞

소요사건에 관한 건 내첩

-근시 소요 전과의 상황을 사찰한 즉, 읍내는 경비가 엄하여 늘어날 여지가 없음을 보고, 경비가 비교적 허술한 지방에 미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그의 주요한 원인은 타군타도에서 들어오는 나쁜 무리의 선동과 협박에 의한 것이 많다니 유감스럽다. 그들 나쁜 무리가 귀면 내에 들어와 선동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곧 힘을 모아 포박하여 헌병에 넘길 것이며 이것을 관하 일반인에게도 급히 주지시켜 좋은 성과를 올리기 특별 내첩함 -

위의 공문은 당시 영영포리 구장이던 위 창래의 아들 위 성현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6. 4월12일의 분일리의 운동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만세운동의 분위기가 군내 마을로

번져가게 됐던 때 서원면 분일리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분일리는 지금의 매표호리를 말하는데 이마을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은 특히 원주 방향의 영향을 크게 입은 듯 하다. 원주는 당시 지금의 원주시와 원성군을 합쳐 원주군이라 불렀었는데 만세운동의 면에서는 좀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원주읍에서 계획하던 만세운동은 당시 원주 감리교회 미국인 선교사가 헌병과 내통하여 사사건건이 사전에 탄로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 각도 헌병대장 회의서류를 수록하여 간행한 조선 헌병 사령부의 -조선소요사건- 33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비밀이 번번이 탄로된 위에 원주읍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끝까지 한번의 운동도 못일으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원주 사람들은 읍을 벗어나 대개 마을단위로 운동을 일으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회수의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은 또 마을 단위의 운동이었기에 가장 작은 규모의 것들이었다. 그러한 마을 단위의 운동은 4월8일과 9일에 지정면, 건등면(문막면), 부론면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 서원면분일리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양의 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분일리(매표호리)는 조항, 상촌, 수동, 향산등 네개의 작은 마을을 합쳐서 이루어진 부락으로 섬강 연안에 위치

하고 있으며 마을 북판에 작은 동산이 있다. 맨처음에 만세운동을 계획한 것은 향산에 살던 송 병기, 성 태현, 박 민희와 수동에 살던 이 정현이 송 병기의 종현(사촌형) 송 병창의 집에 모여 협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위의 네사람은 향산에 살던 사람 약 50명을 거느리고 향산과 수동사이의 동산위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에 상촌에 살던 유 정근, 이 두연과 수동에 살던 이 종우는 수동 느티나무 옆 김 옥봉의 주막(술집)에서 김 옥봉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동산에서 만세소리가 들리니 뛰쳐나가 수동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올라가 같이 만세를 부르다가 내려와, 네개의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도록 만세를 불렀는데 상촌 어느 집에서는 마을들이에 참가 안했기 때문에 군중은 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리하여 군중은 수동에서 상촌, 상촌에서 조항으로 조항에서는 섬강 건너 원주 지정면 무장 마을을 향해 만세를 외치고, 다시 조항에서 향산으로 마을돌이를 하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날쌔무렵에 해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밤새도록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강원도 장관의 보고에는 4월12일로 되어있고, 헌병사령관의 보고에는 13일로 되어 있다. 또 여기에는 일본의 관권이 단시간에 미칠 수 없는 곳이기에 하루나마 독립된 기분에서 흥겨웠다고 마을사람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잡혀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주동 급의 8

명인데, 8명중 김 옥봉은 그후 행방불명이 됐고, 성 태현, 박 민희, 이 정현의 후손은 없으며, 송 병기의 아들 용규는 서울에 이 두연의 아들 병문은 상촌에, 이 종우의 아들 승호는 수동에 각각 살고 있다.

여덟사람중에서 송 병기는 10월, 성 태현과 박 민희는 8월, 유 정근은 7월, 그리고 이 정현, 이두연, 이종우, 김옥봉은 6월의 징역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살았다. 이상으로 황성군 내에서 전개된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는데 이와 같은 운동은 평창군과 원성군 소초면에 번져 더욱 뜻을 길게 하였다. 그리고 3.1 운동은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게 되어 그 후 강력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까지 국내 국외에서 꾸준히 일제의 지배를 공격하였다. 황성에서도 탁 영재등 감리교인이 중심하여 철원 애국단에 가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폈고, 신간회, 농민조합, 청년회 활동에도 가담하였다. 그리고 광주학생사건과 상록회 사건때는 당시 황성출신으로 춘천고등 보통학교에 다니던 백 홍기는 졸업후 체포되어 옥사하였고, 원 후정, 심 재영, 신 현빈과 강릉 농업학교에 다니던 정 형철등 학생이 가담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퇴학된 일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은 해방후 명예 졸업장은 받았지만, 일제하 그외에도 허다한 독립운동관계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으나 여기에서 그 전부를 밝힐 수 없다.

7. 문헌과 증언자

이상으로 황성자체내의 3.1운동에 관한 것은 모두 서술했는데 다음에는 황성운동의 연장운동으로 나타난 원주 소초면의 운동과 평창 운동을 소개할계획이다. 그런데 먼저 밝혀 두는 것은 황성운동을 서술할 때 독자의 불편을 제거키 위하여 일일이 근거 문헌과 관계증언자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너무 학술적인 것을 피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성운동을 보다 명확하고 재미있게 알아 보자면 당시의 문헌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니, 여기에서 문헌을 밝히는 바이고, 또 5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것을 자세히 정리한 것에는 필자의 힘보다는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이 증언해 줬기 때문이니 증언자를 밝혀둔다. 증언자를 밝혀두는 것은 문헌을 밝히는 것만치 학술적으로는 중요한데 많은 증언자의 증언하던 말은 녹음되어 현재 독립운동사 편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다.

(1) 문 헌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애국원호동지회, -한국독립운동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 제2권

동아일보사, -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

김정명, - 조선독립운동 - 제1권

강덕상, - 현대사 자료 - 제25권

조선 헌병 사령부, - 조선소요사건 상화 -

조선 헌병 사령부, - 조선3.1소요사건 -

조선총독부 각급 법원판결문 (판결문은 대 검찰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나 개인
으로 열람하기는 힘들다.)

(2) 증언자 (증언순서)

증언자의 주소와 연령은 일지 현재임

한명수 (69) 횡성면 읍하리 80-2 (1970.10.8)

정재영 (76) 횡성면 반곡리102 (1970.10.8)

유대진 (71) 횡성면 읍하리351 (1970.10.9)

탁영선 (84) 횡성면 읍상리385 (1970.10.9)

방한창 (86) 횡성면 북천리34 (1970.10.9)

신경목 (81) 소초면 둔둔리343 (1970.10.9)

권남홍 (66) 소초면 둔둔리749 (1970.10.9)

권병룡 (58) 소초면 둔둔리 ? (1970.10.9)

추교성 (50) 소초면 교향리 ? (1970.10.10)

박순기 (77) 횡성면 반곡리 ? (1970.10.10)

김선제 (66) 우천면 추동리354 (1970.10.10)

윤동선 (86) 우천면 추동리 ? (1970.10.10)
윤진태 (57) 우천면 추동리 ? (1970.10.10)
김창일 (63) 우천면 추동리 ? (1970.10.10)
최봉구 (73) 횡성면 영영포리 ? (1970.10.10)
위성현 (53) 횡성면 영영포리322 (1970.10.10)
김홍렬 (76) 소초면 평장리1278 (1970.10.10)
이규화 (80) 지정면 무장리922 (1970.10.22)
김성배 (76) 횡성면 갈풍리 ? (1971.10.22)
박일선 (64) 안흥면 용둔리352 (1972.2.20)
김연수 (66) 안흥면 상하가리 49 (1972.2.20)
이천희 (80) 안흥면 상하가리 45 (1972.2.20)
한상진 (77) 횡성면 읍상리 53 (1972.2.21)
한명수 (73) 횡성면 읍하리603 (1972.2.21)
김광현 (63) 안흥면 안흥리 294 (1972.3.10)
오언영 (75) 안흥면 안흥리 594 (1972.3.11)
민봉식 (52) 갑천면 매일리 ? (1972.3.11)
송병태 (84) 서원면 매호리 37 (1972.3.12)
이원종 (72) 서원면 매호리504 (1972.3.12)
심능주 (80) 소초면 장양리1082(1972.3.12)

위의 증언자 중에는 부상자, 태형을 받은사람, 혹은 대부분 참가자나 목격자이다.

인 쇄 : 1990.11.25
발 행 : 1990.11.30
발 행 처 : 횡성문화원
편 집 : 횡성문화원편집실
인 쇄 처 : 성 광 . 사

비매품